

도요타, 미래형 하이브리드카 한국 출시

한국도요타자동차, 프리우스 국내공개 ... 연료절감효과 최고 50%

미래형 친환경 차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첫 하이브리드 양산 모델인 도요타 <프리우스>가 국내에 공개됐다.

한국도요타자동차는 7월6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프리우스 개발 총책임자인 야에가시 다케시사 이사를 초청해 프리우스 설명회를 개최하고 차량 2대를 이용해 시승행사를 가졌다.

프리우스는 1997년 12월 말 출시됐으며 세계 첫 하이브리드 양산 모델로 현재까지 누계 판매대수 23만대를 돌파해 세계 하이브리드 차량 시장의 90%를 차지하고 있으며, 2004년 5월에는 일본시장에서 모델별 판매 10 위권 안에 들기도 했다.

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-휘발유 혼용엔진을 사용해 시동은 전기로, 주행은 휘발유로 각각 이루어져 연료절감 효과가 15-50%에 달하며 배출가스량도 훨씬 적다.

프리우스(1500cc)의 최대출력은 114마력, 최고속도는 165km/h, 연비는 25.5km/ℓ(미국)-35.5km/ℓ(일본)이며 출발 후 시속 100km 지점까지 도달하는데 10.5초가 걸린다.

동급인 현대자동차 아반떼XD와 비교했을 때 최고속도는 프리우스가 아반떼에 뒤지는 반면 출력은 아반떼 XD(107마력)를 7마력 가량 앞지르며 연비는 아반떼(12.0~14.5km/ℓ)보다 훨씬 좋다.

연비는 상당 부분 모터에 의해 구동되기 때문에 국내 최고수준인 경차 마티즈(17.0-18.1km/ℓ)도 훨씬 능가한다.

프리우스는 처음 시동을 걸 때는 모터에 의해 작동된 후 운행 중 모터에 의한 구동과 휘발유에 의한 구동 변환이 자동 조절되며 브레이크를 밟으면 엔진 소비가 차단되면서 모터가 충전된다.

프리우스의 일본 시판가격은 대당 250만엔 가량으로 이 가운데 차량구입 고객이 27만엔, 제조기업은 42만엔 씩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다.

한편, 한국도요타는 2005년께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SUV(스포츠유틸리티차량) 신차인 <RX400H>를 국내에 선보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.

렉서스 브랜드로는 첫 하이브리드카인 <RX400H>는 2004년 연말께 미국시장에서 세계 무대에 선보인다.

배기량은 3300cc지만 4000cc급의 힘을 자랑하며 연비가 크게 개선된 동시에 <유로IV> 기준을 충족시킨다.

한편, 현대자동차도 2005년 하반기께 베르나 후속 신차인 <MC(프로젝트명)>의 하이브리드 양산 모델을 처음으로 출시하고 이에 앞서 2004년 하반기 소형차 클릭의 하이브리드 차량 시험생산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4/07/07>